**Citigroup – IBD (Summer Analyst)**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턴 후기 글 올립니다. 제가 오늘까지 좀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름 아닌 인터뷰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운 좋게 아는 형을 통해서 씨티글로벌마켓증권 IBD Summer Analyst Final Round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offer-based여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 여기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뷰는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총 3시간 봤습니다. (12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총 6분의 associate, analyst 분들이 들어오셔서 1:1면접을 봤습니다.

Technical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personal question, fit question 물어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하다 오신 회계사분에게 회계 질문들 조금 털렸습니다. (여러분, 회계 공부 많이 하세요! 지금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나는 문제들 몇 개 적어봅니다

* EV/EBITDA, PER, PBR 차이는? 언제 어떤게 쓰이나? EBITDA가 마이너스면 어떤 것을 써야하나?
* EBITDA란? EBITDA 어떻게 구하나?
* Startup company가 equity offering, debt offering을 고려할 때 각각의 장단점은? (tax shield 이야기를 들으시길 원했었습니다.)
* Income Statement 위에서부터 쭉 얘기하시고.
* Why banking?
* What is investment banking?
* Walk me through your resume. (여기서는 이제 기타 레주메 관련 질문들, personal questions)
* D&A에 관련된 내용. COGS, SG&A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는 대답이 필요했음.
* TV의 의미는? 계산하는 방법은 몇가지? 각각의 의미는?
* EV 어떻게 구하나? EV/Net Income이 말이 되나?
* 컨설턴트 출신분의 컨설팅 case 질문.
* 49 곱하기 51은? 10년동안 100에서 200으로 이익이 늘었으면 IRR은 몇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어쨌든 IBD 준비하시는 분들 회계회계회계회계 마스터가 되십시오! 아 그리고 인터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처럼 잘 하십니다.